도로교통인 상호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로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새로운 도로교통 패턴을 만들어 갈때…

Greetings message

제 15회 '도로의 날' 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박기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권병식 전 사장님, 정숭렬 전 사장님, 그리고 박창호 대한토목학회 회장님과 정희용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님, 최병선 국토연구원 원장님, 박경부 한국방재협회 회장님, 이영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도로교통인들의 생일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36주년을 기리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낙후된 국토를 재건하고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의 가슴 벅찼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건설과 관리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는 굳은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는 불굴의 투지와 열정 하나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조국에 길을 닦고 희망을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인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당시 왕복 4차로에서 6차로, 8차로로 거듭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도로로 변모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인 양재-기흥간을 오는 2010년까지 왕복 8차로에서 10차로로 개선하기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확장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판교 수원 기흥 3개 IC와 수도권의 관문인 서울 영업소까지 확장할 예정이어서 이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지 · 정체 해소 및 연간 59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총 24개 노선에 3,078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 국토에 10만km나 되는 광대한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수송 물동량의 90%이상을 도로가 담당하는 '선진국' 의 면모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업적 못지않게 더 큰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로교통의 패턴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보다 빠른' 친환경 첨단 도로로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도로교통 원천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고 상호 관련정보를 더욱 긴밀하게 공유하며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새로운 도로 교통 패턴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간 상생협력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 도로교통인들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로교통협회는 '제 1회 국제도로교통 박람회' 와 '국제학술대회' 를 경기도 일산의 KINTEX 빌딩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의 유명인사와 세계 도로연맹 부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600여명이 참석했고 170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 전시장엔 해외 각국 바이어 등 1만 2,000명이 방문해 185억 원의 수출 계약까지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제화 노력은 최근 정부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로건설 노하우 수출 외교 등의 성과와 더불어 한국 도로교통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밖에도 각종 도로교통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기술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도로교통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수상자를 비롯한 모든 도로교통인들에게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손 학 래**